

모방은 창조는 무덤

대중문화 표절 문제

조현희 · 대중문화평론가

사실 주류 대중문화에 있어 표절이라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중음악의 경우 표절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정된 스케일과 화음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시퀀스인 음악의 경우 비슷한 멜로디와 관습적인 표현을 피해낼 수 없는, 그야말로 '아쩔 수 없는 유사함'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말 대중문화에 해악이 되는 표절행위는 악보상의 표절보다 이효리의 경우처럼 모티브를 차용했다는 식으로 일버될 수 있는 유사행위다. 현재 공인된 기법에서 가르고 있는 물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표절을 감시하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민기구가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표절을 감시하고 표절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창작자들이 표절이라는 명분하고 손쉬운 성명방법의 유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감시의 눈'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효리 「Get Ya」...모티브만 따온 것이다??

지난 2월 12일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섹시 스타 이효리가 신곡을 발표했다. 제목은 「Get Ya」. 록 비트와 힙합적인 분위기가 가미되었고 서구 팝 음악과의 동시대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넘버였다. 적어도 형태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뜨거웠던 컴백 무대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인터넷 뉴스 페이지의 댓글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2년 6개월 만에 등장한 이효리의 신곡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Do Something」과 흡사하다는 이야기들이었다.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요 언론사들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고, 이효리의 제작사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표절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의혹은 멈추지 않았다. 전문가와 뮤지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이효리의 새 노래가 표절임을 주장하거나 표절이 아님을 주장했다. 결국 확산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던 「Do Something」의 한국 내 저작권자가 미국의 원저작자에게 표절인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며 「Get Ya」의 음원을 전송했다. 표절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표절을 '당한' 사람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미국의 원작자들로부터 의견이 돌아왔다. 그것은 바로 "일부 표절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원저작자가 '표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 그것은 원래 제3자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원저작자가 "표절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다. 그것은 그들이 이효리의 신곡을 '자신들의 노래를 듣고 따라서 만든 것'으로 내부적 판단을 해버렸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효리 측은 끝까지 표절이 아님을 주장했고 「Get Ya」의 작곡자는 "모티브를 따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원저작자와 만나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중들은 이제 그 곡이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이효리는 더 이상 「Get Ya」의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후속곡으로 활동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네티즌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아티스트

가 당한 국제 망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그동안 혼동하고 있었던 ‘모티브 차용’, ‘샘플링’, ‘리메이크’ 라는 용어들의 확실한 기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수확했다.

패러디, 샘플링, 오마주...창작자 ‘양심’ 의 문제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모티브 차용’이라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대중음악에 있어 모티브를 차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원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희화화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코믹함을 추구하는 ‘패러디’로서의 접근방식이다. 이것은 ‘유명한’ 원곡의 모티브를 새로운 방식으로 편곡하거나 가사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다.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곡은 대부분 큰 히트를 기록했던 넘버이거나 유명한 아티스트의 널리 알려진 곡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원곡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야만 패러디의 재미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뛰어난 원곡, 뛰어난 선배 아티스트에 대한 찬사와 헌정의 의미로 일부를 인용하거나 모작하는 행위인 ‘오마주’가 있다. 오마주 역시 원곡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행동이다. 이 두 가지의 모티브 차용 행위의 공통점은 작곡자가 ‘자신이 원곡을 모방했다는 사실을 대중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모방을 한 후에 표절이라는 혐의가 주어지지 않게야 모티브를 차용했다고 밝히는 것은 ‘모티브 차용 용례’의 대전제로부터 몇 광년 벗어난 일인 것이다. ‘샘플링’은 원곡의 일부분을 그대로 발췌해 인용하는 것으로 원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행위다. 음원 자체가 너무 오래돼 원저작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원저작자를 충분히 찾았다는 노력의 증거와 함께 저작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놓고 음원을 사용해야 한다. ‘원곡과 같은 악보의 노래를 다시 만드는’ 행위인 리메이크 역시 마찬가지로 원저작자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지난 2월 12일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섹시 스타 이효리가 신곡을 발표했다. 제목은 「Get Ya.」. 하지만 뜨거웠던 컴백 무대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인터넷 뉴스 페이지의 댓글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2년 6개월 만에 등장한 이효리의 신곡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Do Something」과 흡사하다는 이야기들이었다. 「Get Ya.」의 작곡자가 적어도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미국 최고 아이돌 여성 싱어’의 노래를 듣지 못한 상태로 우연하게 그 곡과 비슷한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표절시비가 오간 후에 본인의 입으로 ‘모티브를 차용’ 했음을 밝혔다는 것은 이 곡이 표절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창작자 ‘양심’의 문제다.

2006 05 May

표절곡들이 보이는 행태는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야비하다. 최근 발표된 이승기의 「가면」 역시 미국 밴드 Maroon 5의 「This Love」와 지나치게 흡사해 표절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제작자 측에서는 그제야 원저작자에게서 '리메이크 판권'을 뒤늦게 구입했다. 만약 표절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원저작자에게서 판권 구입을 했는지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예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리메이크나 샘플링은 모두 '원곡의 저작자에게 사전에 알려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오마주나 패러디는 '원곡의 저작자가 이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는 작곡자의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원저작자가 몰랐거나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상태로 있어줬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리메이크, 샘플링, 오마주, 패러디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사곡들은 표절이다. 물론 '작곡자가 원곡을 듣지 못했지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Get Ya」의 작곡자가 적어도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미국 최고 아이돌 여성 싱어'의 노래를 듣지 못한 상태로 우연하게 그 곡과 비슷한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표절시비가 오간 후에 본인의 입으로 '모티브를 차용' 했음을 밝혔다는 것은 이 곡이 표절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창작자 '양심'의 문제다.

표절 감시 시민기구 필요하다

사실 주류 대중문화에 있어 '표절'이라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중음악의 경우 표절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천상유애」라는 희대의 표절곡으로 활동하다 네티즌 이전의 PC통신 세대들에게 철퇴를 맞고 활동을 중단했던 롤라뿐만 아니라 데뷔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아티스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서태지, 이မ် 이외의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가왕 조용필까지도 표절 시비를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한정된 스케일과 화음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시간예술인 음악의 경우 비슷한 멜로디와 관습적인 표현을 피해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유사함'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가 행해지던 시절의 기준인 '악보상 두 소절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이라는 물리적인 기준만으로 표절 여부를 가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말 대중문화계에 해악이 되는 표절행위는 악보상의 표절보다 이효리의 경우처럼 모티브를 차용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유사행위다. 현재 공인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국가 기관에서 표절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개방된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신 표절을 감시하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민기구가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표절을 감시하고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창작자들이 표절이라는 달콤하고 손쉬운 성공방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감시의 눈'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절 감시기구의 출현으로 국내의 표절행위가 근절되고 나면 표절 감시기구의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할 일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표절행위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들이 수출되고 있는 타지에서의 표절행위들도 충분히 감시하고 판정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모방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그 패턴은 마치 우리가 외국의 문화상품을 표절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원곡의 작곡자에게 알리지 않은 리메이크뿐만 아니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를 이름으로부터 이미지, 노래까지 통째로 모방하는 경우도 있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결코 살아나기 힘든 대중문화 종사자들은 앞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만 한다. 한국 대중문화 필드를 표절곡이 없는 청정지대로 만든 후, 우리는 우리의 저작권을 수호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표절 감시를 위한 시민기구는 꼭 필요한 것이다. 